

‘2023 미스코리아’ 진, 보스턴대 재학생 최채원 씨



▲ 제67회 미스코리아 미 장다연, 선 김지성, 진 최채원, 선 정규리, 미 조수빈 씨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사진=뉴시스

행복한 표정으로 왕관을 쓴 최씨는 “정말 감격스럽다. 최선을 다했던 모습들과 밝고 긍정적인 모습들을 예쁘게 봐주신 듯해 감사드린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한국 여성의 리더십을 드러내는 한국 여성 리더가 되고 싶다.” 고 밝혔다.

‘진’은 김지성(26·서울·중앙대) 씨와 정규리(25·강원·인천대) 씨가 차지했다. ‘미’로는 장다연(21·대구·영남대) 씨와 조수빈(26·경남·인하공업전문대) 씨가 당선됐다.

이날 치러진 본선 진출자 30명은 재활용한 옷을 입고 펼친 ‘RE: 퍼포먼스’로 춤 실력과 무대 매너를 자랑했다. ‘RE: 음원 퍼포먼스(with. 가수 더원)’에 삽입된 음원을 통해 얻은 수익금은 자선단체에 기부한다. 이날 가수 거미와 뮤지컬 배우 손준호 김소현 부부가 축하 무대를 꾸몄다.

‘제67회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서 최채원(21·서울·보스턴대) 씨가 ‘진’의 왕관을 차지했다.

OTT 플랫폼 미술감독 및 아티스트를 꿈꾸는 최 씨는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올해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서 주인공이 됐다.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는 1957년 시작됐다. 지, 덕, 체를 갖춘 대한민국 글로벌 여성 인재 발굴·양성이 목표다. 이 대회는 글로벌이앤비(Global E&B)가 주최·주관했다.

‘개그콘서트’가 돌아온다... 3년 반 만

일요일 밤 코미디 프로그램의 대명사였던 ‘개그콘서트’가 3년 6개월 만에 돌아온다.

11일 KBS는 “1999년 9월4일 처음 방송돼 수많은 스타들과 유행어를 배출했던 KBS2TV ‘개그콘서트’가 다음 달 12일부터 매주 일요일 오후 10시25분 시청자를 찾는다.”고 전했다.

TV 공개 코미디가 모두 사라져 대중의 아쉬움이 큰 상황에서 KBS는 개그콘서트 부활을 위해 지난 5월부터 크루를 모집했다. 제작진은 프로그램 명을 ‘라스트 개콘’으로 변경하려다 명맥을 잇는다는 의미에서 옛 이름 그대로 ‘개그콘서트’로 결정한



▲ KBS 공개 코미디 프로그램 ‘개그콘서트’가 3년 반 만에 돌아온다. 사진=KBS

것으로 알려졌다.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김상미 CP는 “전 국민의 일요일 밤을 책임졌던 전설의 프로그램 ‘개콘’이 3년 반 만에 돌아온다.”라며 “KBS가 야심 차게 준비한 새 코미디 프로그램인 만큼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라고 전했다.

우리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달라진 방송 환경과 빠르게 변화하는 예능 트렌드 등이 공개 코미디 프로그램의 한계로 지적됐다. 또 많은 코미디언들이 유튜브를 새로운 생태계로 삼고 있는 만큼 코미디 TV 프로그램이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주윤발, 중국 정부 검열 발언에 안전 우려”



▲ 지난 5일 부산 KNN인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홍콩 배우 주윤발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콩의 톱스타 주윤발(저우룬파·周潤發·67)이 지난 5일 부산국제영화제에서 한 발언으로 곤란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관련기사 본보 1493호, 주윤발 “창작의 자유, 한국 영화의 가장 큰 경쟁력”).

미국의소리(VOA)는 6일 “주윤발이 중국 정부의 엄격한 검열을 한탄했고 누리꾼들은 그가 해당 발언으로 문제를 겪을 것이라고 걱정했다.”고 보도했다.

주윤발은 전날 부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홍콩 영화에 대해 “지금은 규제가 많아 제작자들에게 어려운 상황”이라며 “시나리오는 영화 당국의 여러 파트를 거쳐야 하고 정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제작비를 마련하기도 힘들다. 검열이 너무 많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1997년 이후 많은 것이 바뀌었다. 우리는 정부의 지향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영화 제작비를 조달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남기 위한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1997년은 홍콩의 주권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된 해로, 이때를 전후로 홍콩 영화의 전성기는 막을 내린 것으로 평가된다.

VOA는 “웨이보가 해당 주제를 다룬 일부 게시물과 사진을 삭제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일부 누리꾼은 주윤발이 공산당으로부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그의 안전을 걱정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5	3		4					9
		4	7		3			8
			2			9		5
7						8		6
3			2					7
	6	1					5	
9		6		4		1	3	
		7		9	2			
	8		5		6			7

1	불	한	2	당			3	금	품				
			4	선	5	견	지	명		6	퇴		
7	번	8	호			인		9	간	10	소	화	
				11	부	츠					강		
					견				12	빙	상		
13	파	자	14	마			15	기		16	태	17	도
					18	천	신	만	19	고			승
				20	성	루				21	막	바	지